

한국 섬유 산업의 가치제고를 위한 변수 요인의 통시적 연결구조 분석

김장현*, 이유림**, 이지연***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신경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여주대학교 패션산업과

e-mail:jamie8122@naver.com

Diachronic Network Analysis on Variable Factors for enhancing the Values of Textile Industry in South Korea

Jang-Hyeon Kim*, Yu-Rim Lee**, Ji-Yeon Lee***

*Dept. of fashion design, Chung-Ang University

**Dept. of beauty design, Shin-Gyeong University

***Dept. of fashion industry, Yeos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섬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 요인 및 패션 기업들의 경영 환경 변화 요인과 관련된 기사문을 토대로 연도별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핵심 텍스트들을 추출, 최근 5년간 통시적인 관점에서 연결망 구조 분석을 활용하여 그 양상을 탐구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한 연구방법 및 범위는 한국의 섬유 산업 및 신문 기사에 관련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실증적인 연구로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신문 기사의 제호를 중심으로 패션 산업에 영향을 미친 정치·사회적 변화 요인,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 요인을 수합·분류하여 텍스트를 추출하고, 이를 UCINET 6 프로그램으로 시각화하는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섬유 산업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 요인으로는 사드배치, 메르스 발병, 개성공단의 중단, 화평법과 화관법, 최저임금인상, 미·중 무역 전쟁, 외국인 근로자 규제 등이 나타났다. 둘째, 기업 경영 환경 변화 요인들로는 기업종 간의 융합이나 스마트 공정, 로봇공정 등의 첨단 설비 증설의 추진, 소재 개발 분야의 확대 등이 분석되었다. 셋째, 향후 패션 산업이 대비해야 할 리스크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국내 섬유 기업에 대한 태핵 확장, 차별화 소재의 개발을 위한 R & D에 지속적인 투자와 설비 보강, 이종 분야와의 융합을 들 수 있다.

1. 서론

한국의 섬유 산업은 1960년대 초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내수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30%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국가의 경제 발전 및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준 국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현재 섬유 산업의 수출액은 148억 달러에서 137억 달러로 28년 전보다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6년 사상 처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정체기를 맞고 있는 한국 섬유 산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섬유 산업의 동향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섬유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섬유 산업의 현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국내 섬유 신문들을 매개로 하여 한국의 섬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 요인 및

패션 기업들의 경영 환경 변화 요인과 관련된 기사문을 토대로 연도별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핵심 텍스트들을 추출, 최근 5년간 통시적인 관점에서 연결망 구조 분석을 활용하여 그 양상을 탐구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섬유 산업 및 섬유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함의(含意)점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문 기사문을 토대로 섬유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흐름, 기업의 경영 환경의 변화, 국제 경제 및 사회·문화적 경향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 요인들이 한국 섬유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섬유 산업의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방향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섬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도 추정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용적 가치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섬유 산업 및 섬유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신문 매체와 신문 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함께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조사를 수행한다. 셋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섬유 산업 및 기업의 이슈를 살펴볼 수 있는 패션 관련 신문의 제호를 중심으로 섬유 산업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요인,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 요인을 수합한 후, 실제 기사문 내용의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제호와 기사문의 일 치도를 검토하고, 텍스트들을 총체적으로 수합한다. 넷째, 연도별로 섬유 산업에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회적 변화 요인 및 기업 경영 환경 변화 요인의 텍스트들을 범주화하여 분류한 후 연결망 분석의 UCINET 6 프로그램을 활용, 빈도와 밀도, 반복적인 키워드들을 연결망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통시적 관점에서 섬유 산업에 연도별로 영향을 주었던 사회 변화 요인 및 기업 경영 환경 변화 요인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도출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향후 섬유 산업이 대비해야 할 위험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5년간 섬유 산업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 요인 중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사드배치, 메르스 발병, 개성공단의 중단, 화평법과 화관법, 최저임금인상, 미·중 무역 전쟁, 외국인 근로자 규제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요인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남북정상회담 재개, FTA를 통한 관세율 조정이 있었다. 사회·문화적 요인 중 긍정적인 요인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진입, 친환경 사회 조성이 있었으며, 부정적인 요인들로는 사양 산업으로의 인식이 있었다.

둘째, 섬유 기업의 경영환경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업종 간의 융합이나 스마트 공정, 로봇공정 등의 첨단 설비 증설의 추진, 소재 개발 분야의 확대 등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행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었다. 이와 함께 섬유패션 스트립간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통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타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섬유 기업들은 4차 산업시대와 친환경적인 시대의 도래에 따라 광발열 섬유, ICT 스마트 섬유, PET를 활용한 재활용 섬유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오프쇼어링을 진행하는 다수의 한국 섬유 기업들, 과잉생산으로 인한 높은 재고 비율,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최저임금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 및 기업에 대한 혜택 감소 등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향후 섬유 산업이 대비해야 할 리스크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정치적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섬유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의 조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국내 섬유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산업용 전기료 및 가스의 인하나 인건비에 대한 조율을 통하여 오프쇼어링을 하였던 섬유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리쇼어링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섬유 기업들은 친환경 섬유 또는 스마트 섬유나 융복합 섬유의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의 저렴한 소재들과의 차별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기능성 소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재 개발을 위한 R & D에 지속적인 투자와 설비 보강을 통하여 신소재 개발을 점진적으로 확장해야 할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섬유 기업뿐만 아니라 타분야의 기업 및 학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내실을 다져야만 하며, 4차 산업 시대가 지향하는 융합적 가치에 주목할 시, 현재 정체를 맞고 있는 섬유 산업 시장은 제2의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바이다.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8032638).